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방안 연구

강 영 석
(구미여자중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학교 2, 3학년에게 적용될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의 진로, 적성, 능력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여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선택중심’이라는 것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과를 배우는 것과는 달리 ‘선택’에 의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과정을 정하여 진로 변경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학생이 이수할 과목을 국가, 교육청 및 학교가 지정하여 줌으로써 학생 선택권이 없는 교과목들을 편성·운영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진로에 따른 학습의 심화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 적성,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과목을 가능한 다양하게 개설하여 과목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자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수준별로 개설한 점, 일

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편성한 점, 원칙적으로 과정이나 계열 구분 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의 필요나 여건을 고려하여 과정이나 계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밟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제6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여러 연구학교 및 기관을 중심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편성과 운영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강화여자고등학교, 2000; 도계고등학교, 2000; 주문진고등학교, 2000; 고흥고등학교, 2000; 대전광역시교육청, 2001),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01; 경북교육과학연구원, 2001; 의성여고,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얼마나 다양하게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김재춘(2001)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물들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의도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현재의 학교시설이나 교원여

건에서 운영 가능한 방안을 연구·개발하기보다는 학생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상적인 방안을 주로 연구·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이들 연구에서는 연구 산출물로서의 교육과정 편성표나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떻게 이런 결과물들이 산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즉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극히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읽더라도 독자들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제6차 교육과정의 틀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편성과 운영의 예시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2003학년도부터 적용될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현재의 학교 시설이나 여건 하에서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현주소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실태를 바탕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시설과 여건에서 편성한 2003학년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표를 분석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현주소를 밝힘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유의점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다.

첫째, 어떠한 과정을 주로 설치하고 있는가?

둘째, 선택 주제별 선택과목 이수 단위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학생선택과목의 선택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학기당 이수과목 수는 어느 정도인가?

다섯째, 집중이수 과목군의 일반선택과목 면제에 관련된 규정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김재춘, 2001).

가. 자유 선택: 네 개 이상의 과목을 개선해 놓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예, 시민윤리, 생활과 과학, 음악과 생활, 미술과 생활, 생활 경제, 진로와 직업 중 택1)

나. 택일 선택: 두 세 개의 과목을 개선해 놓고 그 중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예, 정치와 경제 중에서 택1)

다. 집단 선택: 학생 개개인이 아니라 학생 집단 즉 다수가 선택한 과목을 개선하여 이수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예, 독서, 문법, 화법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원하는 '독서'를 개선해주는 방식)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경상북도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현재의 학교 시설이나 교원 여건하에서 편성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여건(교원 충원과 시설확충)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상의 이해와 오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교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의 개인차가 고려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체제를 의미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와 관련하여 선택 과목의 136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가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 비율은 최대 50%까지 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최대 50%인 68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학생에 의한 과목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학생이 교육과정에 대한 일차적인 선택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논의에서 학생선택과 관련하여 김재춘(2001)은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하였다.

첫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념 및 현실 여건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오해가 발생하였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목을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는 이념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운영이 불가능한 아이디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이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교과목의 선택을 학생에게 맡겼을 때, 학생들은 공부하기 쉽고 점수따기 쉬운 교과목만을 ‘편식’(선택하여 이수)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의 시설에서 학생들 각자가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해 주기에는 학교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p. 48).

이러한 오해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모든 교과목의 선택을 학생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택의 주체는 개인으로서의 학생과, 기관으로서의 교육청과 단위학교이다. 따라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지정선택과 학생들의 자유선택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그 취지가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선택은 최대 50%까지이므로 학교에서 학생선택을 실제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제6차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오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학교에서 학생선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자, 교육부(1998, 2001a)에서는 ‘학생도 최저 28단위(20%)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침에서는 대부분 교육부의 권장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16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는 학생선택의 최소 수준을 28단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개 교육청은 학생선택을 최소 28단위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편, 2001).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선택을 최저 28단위, 최대 68단위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선택의 주체들 간에 ‘누가 얼마나 선택권을 행사하느냐’하는 점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홍후조(2001a)는 6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육과정의 분권화를 중요시하여 교육청이 교육부보다, 학교가 교육청보다, 학생이 학교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행사하면 민주적 분권화가 된 것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홍후조(2001b)는 가르칠 교사가 없는 상태, 교사의 절대수가 모자란 상태, 교실의 여유가 없는

상태, 학생의 선택을 의미있게 할 수 있는 조건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의 선택'을 늘리는 것만으로 학교 교육의 혼란, 교육의 질적 저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의 초래, 상치 과목 교사로 인한 수업시간의 낭비, 학생들 자신의 방향감 상실 등을 낳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재춘(2001)도 학생선택을 무조건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는 전제 아래, 학교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선택을 많이 제공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현시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학교의 선택을 가장 크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로 학생선택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면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초기 단계에는 가급적 학생선택의 비율을 낮추고 학교선택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아직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선택 비율을 높인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학교가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중심 교육과정 초기에는 학교선택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학생선택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일만계 고등학교에서 6차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던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의 특정 과정에 얽매임이 없이 학생이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과정선지와 관련하여,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선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홍후조(2001b)는 먼저 선택과목을, 낱말의 과목단위로 이것저것 자유롭게 선택하여 배우는 '과목' 선택과 여러 개의 관련되는 과목들을 묶은 '교과영역'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일반선택과목이나 교양과목 등은 생활 연관적, 교양적, 탐색적, 개인 취향적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과목'선택이 적절하고, 심화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과에 이어 대학에 진학하여 학습할 기초를 닦는 매우 계열적인 학습을 요구하므로 과목선택보다 교과영역선택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Glatthorn(1994)는 선택과목을 '이질적인 교과에 속하는 과목'들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와 '하나의 교과 내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로 구분한 다음, 내용중심 선택과목인 후자가 전자보다 더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두정(1999)은 각 과목군에 1~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일반선택과목은 상식적으로 유사점이 있어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학문 분야 혹은 영역에 뿌리는 두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반선택과목은 선택 자체가 당연히 '이질적인 과목' 중에서의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홍후조(2001b)의 구분에서는 '과목' 선택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에 심화선택과목은 '하나의 교과 내에서 과목 선택'이나 '교과영역' 선택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을 모아서 과정을 만들거나 학교에서 필요한 과정을 선치·운영할 경우 일반선택과목 보다는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할을 시사받을 수 있다.

홍후조 외(1999)는 학생들의 학습에 일정한 방향을 지닌 교과목들을 묶은 것을 학습체제 또는 과정이라고 할 때, 심화선택과목을 개선 이수시키는 길은 일정한 학습체제를 만들어 이수시키는 경우와 이런 장치 없이 이수시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체제가 없는 상태로 학생들이 많은 과목 중에서 이것저것 선택하는 식으로 학교가 교육과정을 이수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도, 모든 교육청들이 학교가 과정을 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자연, 과학·기술, 이공, 생화학, 외국어, 예·체능, 직업 등의 과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에 초점, 방향, 계열, 집중을 가져 올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학교의 2003학년도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에서는 종래의 인문·자연으로 이원화하기보다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과정을 구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2002. 10.10)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2003학년도 '교육과정'을 6차와 다름없이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대학들이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3+1' 수능 반영 즉, '최소한의 대학교육이수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수능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방식의 수리 가형/수리 나형, 사회탐구/과학탐구 구분은 현행 인문·자연과정 구분과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모집단위도 크게 인문/자연/예체능 계열 등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제6차 교육과정의 인문·자연과정 체제와 거의 비슷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 중등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당 배우는 과목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크다고 한다. 홍후조 외(1999)는 서울 강북지역 31개 고교의 학기당 개설 과목수를 조사한 결과, 인문과정은 2, 3학년 공히 15과목을 배우고, 3학년에서는 인문과정이 15과목을 자연과정은 14과목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현재 한 학기에 15여개에 이르는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는 3년간에 예정된 과목별 단위수를

잘게 쪼개어 분산 이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재춘(2001)은 한 학기에 10개 이하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4~6단위 짜리 과목은 말할 것도 없고, 8단위 짜리 과목도 한 학기에 끝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특정 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하여 이수하도록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줄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교사 수준에서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경상북도 교육과학연구원, 2002). 따라서 1, 2학기별로 같은 교과에서 집중 이수 과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사 수준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교과에서 선정될 경우에는 1, 2학기 전공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상치 과목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교사 수준을 조절해 온 것을 학기 단위로 계획을 세우거나, 학기별로 검임 교사, 순회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최근에 이루어진 제7차 교육과정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기관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기관의 연구과제로서 수행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들이다(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 2001, 2002; 김재춘, 2001; 인천광역시 교육청, 2001, 2002, 홍후조 외 1999). 둘째는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시범학교로서 단위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들이다. 셋째는 학회지나 연구회지에 실린 개인 연구로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여기서는 학교 차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최근의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과정 설치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학교내 과정의 종류와 수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마다 다양한 과정의 종류와 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는 과정을 다양하게 개선하고 있다.

도계고등학교(2000)는 집중이수과정을 인문·사회 집중과정, 과학·기술 집중과정, 외국어 집중과정 3개의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여기서 과정은 학교선택 40 단위를 배당하는 비율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즉 인문·사회과정은 인문·사회 과목군 20단위, 과학·기술 과목군 12단위, 외국어 과목군 8단위를, 과학·기술과정은 인문·사회 과목군 12단위, 과학·기술 과목군 20단위, 외국어 과목군 8단위를 학교지정으로 배당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과정은 인문·사회 과목군 12단위, 과학·기술 과목군 12단위, 외국어

과목군 16단위를 학교지정으로 배당한 것이다.

고창고등학교(2001)는 집중이수과정을 인문 집중, 사회과학 집중, 외국어 집중, 자연과학 집중, 공학 집중 5개의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여기서 과정 구분은 학교지정 과목을 <표 1>과 같이 구분한 것이다.

의성여자고등학교(2001)는 인문·사회집중과정, 자연집중과정, 예·체능집중과정으로 구분하고 인문·사회집중과정은 인문사회 과목군(40~72단위), 외국어 과목군(22~50)을 핵심교과로 나머지 과목군을 보완교과로 136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집중과정은 과학·기술과목을 핵심교과로 44~72단위를 이수하고 나머지 과목군을 보완교과로 하고 있다. 예·체능집중과정은 예체능과목군을 핵심교과로 48~60단위를 이수하고 나머지 과목군을 보완교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성여자고등학교(2002)는 이상모형과 현실모형으로 구분하여, 이상모형에서는 2001학년도와 같이 인문·사회과정, 자

<표 1> 학교 지정 선택 과목 단위 수

과정 과목군	인문집중	사회과학집중	외국어집중	자연과학집중	공학집중
인문·사회 과목군	화법(6) 독서(8) 문학(10) 법과사회(6)	독서(8) 문학(10) 법과사회(6) 경제(6)	독서(8) 문학(10) 법과사회(6)	독서(8) 문학(8) 법과사회(6)	독서(8) 문학(8) 법과사회(6)
과학·기술 과목군	수학 I (10) 확률과통계(4)·이산수학 중 택1 물리 I (4) 화학 I (4)	수학 I (10) 확률과통계(4)·이산수학 중 택1 물리 I (4) 화학 I (4)	수학 I (10) 확률과통계(4)·이산수학 중 택1 물리 I (4) 화학 I (4)	수학 I (8) 수학 II (10) 물리 I (4) 화학 I (4) 미분과적분(6)	수학 I (8) 수학 II (8) 물리 I (4) 화학 I (4) 미분과적분(4) 공업기술·기업경영 중 택1(4)
예·체능 과목군	체육실기(4)	체육실기(4)	체육실기(4)	체육실기(4)	체육실기(4)
외국어 과목군	영어 I (6)	영어 I (6)	영어 I (6) 영어작문(6)	영어 I (6)	영어 I (6)
계	62	62	62	64	64

연과정, 예·체능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2003학년도부터 실제로 적용한 현실모형에서는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만으로 편성하여, 희망자가 적은 예·체능과정을 제외하였다.

양운고등학교(2002)는 2001학년도에는 인문·사회과정(인문집중, 사회집중), 과학·기술과정(수학집중, 과학집중), 외국어과정, 예·체능과정으로 세분화하였으나, 2002학년도에는 집중이수과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요강에 대비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새로운 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과정을 인문·사회·외국어과정, 자연·이공과정, 예·체능과정으로 조정하였다.

연수고등학교(2001, 2002)는 2001학년도에는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예·체능과정으로 과정을 개설했으나 2002학년도에는 예·체능과정의 희망자가 적어 인문·사회과정과 자연·이공과정으로 조정하였다. 2002학년도 인문·사회 과정은 인문·사회 과목군을 중심으로, 자연·이공 과정은 과학·기술 과목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사회와 과학 교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교과에서는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이공 과정의 이수 단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과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문과, 이과 과정보다는 다양하게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과정을 구분하여 과정별로 선택 과목들을 달리 개설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각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과정 설치 방안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정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과정별로 개선되는 선택과목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인문과정, 사회과정 및 외국어 과정 간에는 선택과목이 거의 비슷하며, 자연과학과정과 공학과정 간에는 선택과목이 거의 유사하여 과정간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과정은 통합하거나 과정별 차이를 뚜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성하여 상이한 과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2학년도에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대입전형 방식에 의하여 과정수가 줄어들어 제6차 교육과정의 인문·자연과정으로 회귀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나. 선택과목의 선택

도제고등학교(2000)는 선택 주제별 선택 비율을 교육청 32단위, 학교 40 단위, 학생 64단위로 하였다. 이 중에서 교육청지정 32단위는 일반선택과목이며 나머지 104단위는 심화선택과목이다. 학생선택 64단위는 상이한 과목군의 과목들로 구성된 선택군을 만들어 놓고 백1하도록 하는 자유선택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생선택은 비록 64단위이나, 선택과목 전체 136단위 중에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필수로 지정한 3과목 16단위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에게 복수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나머지 120단위 모두가 학생 선택과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기당 이수하는 과목수는 2학년의 경우 1학기는 9과목, 2학기 10과목이며, 3학년은 1학기 10과목, 2학기 9과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창고등학교(2001)는 2000학년도에는 선택 주제별 선택 비율을 교육청 40단위, 학교 40단위, 학생 56단위로서 학생선택 단위를 높게 운영하였으나 2001학년도에는 교육청 38단위, 학교 62 단위(자연과학과 공학 집중은 64단위), 학생 36단위(자연과학과 공학 집중은 34단위)로 하였다. 이 중에서 일반선택과목은 대부분 교육청지정 과목으로 30단위이며 나머지 106단위는 심화선택과목이다. 따라서 2001학년도는 학생선택 단위수가 2000학년도에 비해 대

폭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선택 단위수를 낮춘 이유는 2000학년도에 학생선택을 56단위로 한 결과 거의 모든 시간이 이동수업이 되고, 이동수업으로 인하여 교사들이 지도해야 할 과목수가 많아 자칫 수업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았고,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체계적이고 안내가 있으며 진로, 적성, 소질에 맞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취지에 맞는 지 의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학생선택은 동일군에서 2, 3개 과목끼리 묶어서 택일선택하거나 자유선택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수는 5개 과정 대부분 2, 3학년 모두 11과목(공학과정은 12과목)으로 나타났다.

의성여자고등학교(2001)는 인문사회 집중과정과 자연 집중과정의 경우 교육청 41단위, 학교 61 단위, 학생 28단위, 예체능 집중과정에서는 교육청 28단위, 학교 80단위, 학생 28단위를 배정하였다. 그리고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은 21단위, 예체능과정은 28단위를 과목군별로 인만선택과목을 배정하였다.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에서 인만선택과목 단위수가 21단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인문사회과정에서는 인문사회과목군에서 인만선택과목 이수를 면제하였으며, 자연과정에서는 과학기술과목군에서 인만선택과목을 면제하였기 때문이다. 학생선택 28단위는 서로 다른 과목군의 과목들로 구성된 상이한 과목군에서 택1하도록 하는 자유선택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생선택은 28단위에 지나지 않으나, 선택과목 전체 136단위 중에서 교육청과 학교지정과목을 학생들에게 택일 선택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문사회과정은 74단위, 자연과정은 66단위, 예체능과정은 58단위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선택과목을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수는 2학년의 경우는 전 과정이 1, 2학기 각각 9과목이며, 3학년은 인문사회와 자연과정은 1, 2학기 각각 9과목, 예체능과정에서는 1, 2학기 각각 7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의성여자고등학교(2002)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3학년도에는 실제 운영하는 현실모형을 적용하여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청 28단위, 학교 80단위, 학생 28단위를 배정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수과목수는 2학년은 인문과정과 자연과정 모두 1, 2학기 각각 11과목이며, 3학년은 인문과정은 1, 2학기 각각 9과목, 자연과정은 각각 10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양운고등학교(2002)는 2001학년도에는 교육청 30단위, 학교 50단위, 학생 56단위를 배정하였으나, 2002학년도에는 새로운 대입수능능력시험 요강에 대비하여 교육청 30단위, 학교 62(예·체능은 58)단위, 학생 44(예·체능 48)단위를 배정하였고, 새로운 대학입시 요강에 대비하여 교육청 30단위, 학교 58~66단위, 학생 34~56단위로 조정하였다. 학생선택은 동일군의 과목끼리 묶어서 택일선택하거나 자유선택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첫째, 각 학교에서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교원 수급 방안 및 시설 확충 등의 추가 여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선택의 단위수를 가급적 높게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 학교 여건의 교사 수급 상황과 시설에 적합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는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학생선택 과목 선정시, 동일 과목군의 과목 또는 상이한 과목군의 과목끼리 묶어서 택1 선택이나 자유선택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때 동일 과목군의 과목끼리 묶어서 택1선택하는 방법은 학생선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단점은 있으나 각 과정 내에서 학생 개인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용이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 수급과 관련하여, 동일 과목군보다는 상이한 과목군의 과목끼리 묶어서 학생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집단선택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집단선택의 방법도 학교에서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학생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최하 7 과목에서 최대 12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몇 과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대상

경상북도 교육청(2002)이 10월에 발행한 연수 자료에는 137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과 예체능고등학교를 제외한 132개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132개교에는 일반계 과정이 설치된 23개의 종합고등학교가 포함되었다.

2. 분석 절차

가. 과정 개설

132개교에 개설된 과정을 도수로 정리하여, 한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정 수와 개설되는 과정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정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나. 선택 주체별 선택과목 이수단위 및 선택방법 비교

132개교 중 2003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이 확정된 것은 2002년 10월 12일 현재까지 79개교였다. 이중에서 통합과정으로 편성한 학교는 3

개교밖에 되지 않아 통합과정을 제외한 76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선택주체별 이수단위 및 선택방법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76개교에는 인문과정은 76개교 모두 개설되어 있으며 자연과정은 52개교가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인문과정은 인문과정, 인문사회과정을 대표하는 과정으로 자연과정은 이공과정, 과학기술과정, 자연이공과정 등을 대표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선택 주체별 선택과목 및 선택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3학급 이상인 학교는 대규모 학교로, 2학급 이하인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구분하여 과정 규모 간의 차이를 기술통계치 및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이처럼 분석대상 학교를 소규모와 대규모로 나눈 것은, 1-2학급 이하인 학교가 인문과정에는 32개교, 자연과정에서는 26개교로 거의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는 대규모학교에 비해 학생선택과목을 선택하는 방법 등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 학기별 이수과목 수

인문과정 76개교와 자연과정 52개교를 대상으로 학기별 이수과목 수를 범위, 평균과 같은 기술통계치로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132개교에 개설된 과정 분석을 위해서는 원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과정별로 도수를 세었다. 그리고 2003학년도 편제표가 확정된 76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SAS 프로그램으로 평균, 범위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과정 개설

132개교에 개설된 과정을 도수로 세어본 결과 인문과정이 89개교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자연과정 78개교, 인문사회과정 39개교이며, 가장 적은 과정은 공통과정 8개교, 과학기술과정 8개교, 자연이공과정 4개교, 과학과정 3개교, 이공과정 1개교, 예체능 1개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인문과정과 인문사회과정을 모두 인문과정으로, 자연과정, 과학기술과정, 자연이공과정, 과학과정을 모두 자연과정으로 보면, 인문과정은 128개교이며 자연과정은 94개교이며 통합과정은 8개교, 예체능과정은 1개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학교에 개설된 과정의 수는 1개 과정은 34개교, 2개 과정은 97개교, 3개 과정은 1개교로 나타났다. 1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34개교 중에서 27개교는 인문과정, 7개교는 통합과정으로 편성하였다. 2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97개교 중에서 96개교는 인문과정(인문사회과정 포함)과 자연과정(과학기술과정, 자연이공과정, 과학과정, 이공과정 포함)이며, 1개교가 통합과정과 인문과정으로 편성하였다.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1개교는 인문과정, 자연과정, 예체능과정으로 과정을 편성하였다.

1개 과정을 개설한 34개교 중 학년당 2학급 이하가 32개교이며 3학급이 2개교로서 모두 학

년당 3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그리고 2개 내지 3개 과정을 개설한 학교는 학년당 2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가 5개교이며 나머지는 모두 학년당 3학급 이상이였다. 따라서 학교 규모가 작아질수록 과정이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교과목 선택 주제별 선택과목 이수 단위

가. 선택 주제간의 단위 비교

136단위의 선택과목을 교육청지정, 학교지정, 학생선택으로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택 주제 간의 선택과목 단위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인문과정과 자연과정 모두 학교지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교육청지정, 학생선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학교지정은 62~64로서 전체 선택과목 단위수 136단위의 약 50%를 차지하므로 단위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육청지정은 대략 37~39단위로서 학생선택 35~36단위보다 2~3단위가 높으나 교육청지정과 학생선택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교육청지정의 범위는 최저 28단위에서 최고 50단위로서 22단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해, 학생선택의 범위는 최저 20단위에서 최고 64단위로서 44단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청지정의

<표 2> 선택 주제간의 단위수 비교

선택주체	인문과정					자연과정				
	학교수	단위수				학교수	단위수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교육청	76	28.0	50.0	37.22	7.61	52	28.0	46.0	38.75	7.00
학교		36.0	82.0	63.54	9.97		32.0	86.0	61.63	10.38
학생		20.0	56.0	35.24	7.91		22.0	64.0	35.69	8.89

단위수는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학생선택 단위수는 학교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택주체별 단위수가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에 의하면, 인문과정의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 간에는 교육청지정에서는 대규모 학교가 4.17 단위가 높게 나타나 5%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학교지정과 학생선택은 소규모 학교가 각각 0.15단위, 4.01 단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며, 학생선택에서는 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로 밝혀졌다. 따라서 교육청지정은 대규모 학교의 단위수가 높고, 학생선택은 소규모 학교의 단위수가 더 높으며, 학교지정의 단위수는 소규모와 대규모 간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자연과정의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 간에는, 교육청지정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2.31 단위가 높고, 학교지정과 학생선택은 대규모 학교가 각각 0.35단위, 2.15단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는

의의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교육청지정, 학교지정, 학생선택 단위수에 있어서 학교 규모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과정에서는 학교 규모간에 교육청, 학교, 학생의 선택과목 이수단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개설과목 수의 선택주체별 비교

선택 주체별 단위수도 중요하지만 단위수에 못지 않게 개설된 과목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이는 개설과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과목을 개설하고 한 과목을 택하는 선택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와 대규모 학교 간의 개설과목 수를 선택주체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에 의하면 인문과정에서는 대규모 학교가 소규모 학교보다 개설 과목수가 교육청지정 0.08과목, 학교지정 1.42과목, 학생선택 1.53과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청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으나 학교지정과 학생선택에서는 각각 1%와

<표 3> 인문과정 규모 간의 선택주체별 단위수 비교

구분	교육청지정			학교지정			학생선택		
	N	M	SD	N	M	SD	N	M	SD
소규모	32	34.81	7.36	32	63.63	9.39	32	37.56	7.73
대규모	44	38.98	7.39	44	63.48	10.47	44	33.55	7.68
t	0.0177			0.9496			0.0277		

<표 4> 자연과정 규모 간의 선택주체별 단위수 비교

구분	교육청지정			학교지정			학생선택		
	N	M	SD	N	M	SD	N	M	SD
소규모	26	39.92	6.80	26	61.46	8.21	26	34.62	6.76
대규모	26	37.58	7.12	26	61.81	12.35	26	36.77	10.64
t	0.2301			0.9058			0.3887		

5%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보다 학교지정과 학생선택 과목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 의하면 자연과정에서는 대규모 학교가 소규모 학교보다 개설 과목수가 교육청지정 0.08과목, 학교지정 0.54과목, 학생선택 2.36과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청지정과 학교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는 없으나, 학생선택에서는 1%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보다 학생선택 과목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3. 학생선택 방법

76개교의 인문과정과 52개교의 자연과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선택 방법을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인문과정에서는 집단선택을 적용한 학교수는 59개이며 평균적으로 5.81개 과목을 집단이 선택한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인선택은 35개교이며 평균적으로 3.24과목을 두 세개의 과목 중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택은 3개 학교에서 2과목 정도를 4과목 이상에서 자유로이

<표 5> 인문과정 규모 간의 개설과목수 비교

구분	교육청지정			학교지정			학생선택		
	N	M	SD	N	M	SD	N	M	SD
소규모	32	6.12	0.55	32	10.03	1.73	32	7.22	1.77
대규모	44	6.20	0.59	44	11.45	1.70	44	8.75	3.33
t	0.5549			0.0006			0.0118		

<표 6> 자연과정 규모 간의 개설과목수 비교

구분	교육청지정			학교지정			학생선택		
	N	M	SD	N	M	SD	N	M	SD
소규모	26	6.07	0.39	26	10.88	2.03	26	8.08	2.26
대규모	26	6.15	0.46	26	11.42	1.14	26	10.46	3.15
t	0.5216			0.2445			0.0029		

<표 7> 과정별 학생 선택 방법 비교

구분	인문과정						자연과정					
	학교수			평균			학교수			평균		
	소규모	대규모	전체	소규모	대규모	전체	소규모	대규모	전체	소규모	대규모	전체
집단선택	30	29	59	6.24	5.40	5.81	20	16	36	6.00	5.68	5.86
택인선택	10	25	35	1.64	3.68	3.24	13	18	31	3.46	4.75	3.71
자유선택	0	3	3	0	2.00	2.00	0	3	3	0	2.00	2.00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택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 규모별로 살펴보면, 인문과정의 경우 집단선택은 소규모 학교 6.24 과목, 대규모 학교는 5.40과목으로 나타나 집단선택은 소규모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백일선택에서는 소규모 1.64, 대규모 3.68로 나타나 백일선택은 대규모 학교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유선택은 대규모 학교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정에서도 인문과정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택 방법으로 소규모 학교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집단선택을 더 많이 사용하고 대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에 비해 백일선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학기당 이수과목수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학기당 이수하는 과목수를 과정별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학기당 이수하는 과목수는

인문과정과 자연과정 모두 2학년은 약 12과목이며 3학년은 약 11과목으로서, 2학년이 3학년보다 이수 과목 수가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2학년은 과목수가 최저 10과목에서 최고 17과목으로 7과목의 차이가 나며, 3학년은 최저 9과목에서 최고 14과목으로 5과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일반선택과목 면제 적용 학교 수 분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는 집중 이수 과목군의 일반 선택 과목 면제와 관련하여, 학생이 집중 이수하고자 하는 심화 선택 과목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문과정 76개교와 자연과정 5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일반선택과목 면제 규정을 적용한 학교수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인문과정에서는 76개교의 17%에 해당하는 13개교가 인문·사회 과목군의 일반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자연과정에서는 52개교의 12%에 해당하는 7개교가 과학

<표 8> 선택과목의 학기당 이수 과목수 비교

구분		인문과정					자연과정				
		학교수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학 기	2-1	76	10	16	11.80	0.99	52	10.0	17.0	12.33	1.14
	2-2		10	16	11.84	0.98		10.0	17.0	12.38	1.13
	3-1		9	14	11.38	0.88		9.0	14.0	11.45	1.08
	3-2		9	14	11.39	0.90		9.0	14.0	11.45	1.11

<표 9> 일반선택과목 면제 규정 적용 학교수

과목군	인문과정			자연과정			비고
	소규모	대규모	계	소규모	대규모	계	
인문사회	3	10	13	.	.	.	
과학기술	7	7	1학년 교과재량활동에서 '정보사회와 컴퓨터'과목 이수

기술과목군의 일반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집중이수하고자 하는 과목군의 일반선택과목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과정에서는 7개교 모두 1학년 교과재량활동 시간에 과학기술군에 해당하는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을 미리 이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과학기술군에서 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면 일반선택과목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한 편제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몇 가지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크게 2개 과정 즉,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을 중심으로 과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2개교에 개설된 과정 중 인문과정이 89개교, 자연과정 78개교, 인문사회과정 39개교, 공통과정 8개교, 과학기술과정 8개교, 자연이공과정 4개교, 과학과정 3개교, 이공과정 1개교, 예체능 1개교였다. 그리고 한 학교에 개설된 과정의 수는 1개 과정은 34개교, 2개 과정은 97개교, 3개 과정은 1개교로 나타났다. 1개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인문과정 또는 통합과정이며, 2개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인문과정(인문사회과정 포함)과 자연과정(과학기술과정, 자연이공과정, 과학과정, 이공과정 포함)이 대부분이며, 3개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인문과정, 자연과정, 예체능과정으로 과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들 중 인문과정과 인문사회과정은 모두 인문사회 과목군과 외국어 과목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묶어서 인문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과정, 과학기술과정, 자연이공과정, 과학과정,

이공과정 모두 과학기술 과목군과 외국어 과목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자연과정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학교는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이 중심이 되며 그밖에 통합과정과 예체능과정이 부분적으로 개설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과, 이과 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문과정과 자연과정 중심의 2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점은 2001학년도에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연수고등학교(2001)의 3개 과정(인문사회, 자연이공, 예체능), 의성여고(2001)의 3개 과정(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고창고등학교(2001)의 5개 과정(인문, 사회과학, 외국어, 자연과학, 공학)보다 과정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학년도에 수행된 연수고등학교(2002)의 2개 과정(인문·사회, 자연·이공), 의성여자고등학교(2002)에서 제시한 현실모형 2개 과정(인문·사회, 자연)과는 일치된다. 2001학년도에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연구과정의 수효가 아무리 많아도 과정 간에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다. 예컨대, 자연과학 과정과 공학 과정 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리고 인문과정, 사회과학과정, 외국어 과정간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과정별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학교 선택에 해당하는 단위 중의 일부를 선행연구에서 과정별로 지정하였으나 대체로 1~2과목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더구나 선택과목을 지정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로 요구하는 교과목의 최소요구기준에 맞추다 보면 과정 간의 차이가 더욱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이견주(2002)는 특히 서울대가 지원자격으로 교과목별 최소이수 단위를 제시하면서, 문/이과 구별없이 사회교과와 과학교과를 모두 22단위 요구하고 있는 것은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을 현행 문/이과체제로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문/이과의 구분마저 없앨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양운고등학교

(2002)에서는 2001학년도에 인문·사회과정(인문집중, 사회집중과정), 과학·기술과정(수학집중, 과학집중과정), 외국어과정, 예·체능과정으로 세분화하였으나, 2002학년도에는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다양한 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인문·사회·외국어과정, 자연·이공과정, 예·체능과정으로 과정을 축소하였다. 연수고등학교(2002)에서는 일부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요 최소 이수 단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요 최소 이수 단위’를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특색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제한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2005학년도 주요 대학들의 전형계획이 학생들을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입시 위주의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진로 등에 따라 특정 교과 영역을 집중 이수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체제를 수립할 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선택주체간 선택과목 단위수는 인문과정의 경우 교육청지정이 37단위, 학교지정이 61단위, 학생선택 35단위로서 학교지정이 가장 많고 교육청지정과 학생선택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연과정의 경우에도 인문과정과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선택 단위수를 가장 높게 배정한 도계고등학교(200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도계고등학교는 교육청지정 32단위, 학교지정 40단위, 학생선택 64단위를 배정하였으며 교육청과 학교지정 과목 대다수를 학생들에게 복수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선택은 120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2000학년도에 교육청지정 40단위, 학

교지정 40단위, 학생선택 56단위를 배정하여 학생선택 단위수를 높게 설정하였으나 2001학년도에는 교육청지정 38단위, 학교지정 62~64단위, 학생선택 34~36단위를 배정한 고창고등학교(2001)의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반면에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는 대체로 일치된다. 이는 2001학년도부터는 학생선택의 단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연수고등학교(2001)의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이공 과정에서는 교육청지정 32단위, 학교지정 68~70단위, 학생선택 34~36단위가 배정되었다. 그리고 양운고등학교(2002)에서는 교육청지정 30단위, 학교지정 58~66단위, 학생선택 34~56단위를 배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학생중심 교육과정임을 표방하고 있음에 비추어 학생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가 과목 선택권을 최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재춘, 2001).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학교의 선택을 가장 크게 편성하는 것을 시작하여 점차로 학생의 선택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선택 방법은 집단선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택일선택이며 자유선택은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과정의 경우 76개교 중 집단선택 방법을 사용한 학교는 59개교이며 평균적으로 약 6개 과목을 학생들이 집단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택일선택은 35개교에서 평균적으로 약 3개 과목을 두세개의 과목 중 학생 개인이 선택하였다. 4개 과목 이상에서 학생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선택 방법은 3개교에서만 사용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학생선택 방법으로 사용하는 택일선택이나 자유선택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도계고등학교, 2000; 연수고등학교, 2001; 고창고등학교, 2001; 전라고등학교, 2001)에서는 양자택일이나 자유선택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OMR 카드 등으로 선택과목 수강신청을 받고 이를 전산 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집단선택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은 개인선택이며 자유선택 방법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학교 여건 하에서 집단선택과 개인선택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점차 개인선택이나 자유선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선택은 부리하게 처음부터 많은 단위수를 학생들에게 배정하기보다는 적절한 단위수(약 30단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노후가 축적되면 학생선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다는 김재춘(2001)의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학기당 이수 과목수는 2학년 12과목, 3학년 11과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산여자고등학교(2001)의 학기당 이수 과목수 2학년 13과목, 3학년 12과목보다는 다소 적으나 의성여자고등학교(2001)의 학기당 이수 과목수 2학년 9과목, 3학년 9과목보다는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라고등학교(2001)의 학기당 이수 과목수 2학년 11과목, 3학년 11~12과목과는 거의 일치한다. 선행연구를 비롯한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학기당 이수 과목수는 비록 10과목 이내로 한다는 국가수준 교육과정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6차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수가 약 15개에 비추어 볼 때 학기당 이수 과목수가 다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학기에 10개 이하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소수의 과목을 심층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수가 적은 과목을 학기별로 집중이수하거나 증배운영을 통해 과목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이 집중이수하고자 하는 심화선택과목군의 일반선택과목은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선택과목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학교는 인문과정 13개교, 자연과정 7개교로서 각각 인문사회 과목군과 과학기술군의 일반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과정 7개교 모두는 1학년 교과 재량활동에서 과학기술군의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자연과정 7개교는 사실상 과학기술과목군의 일반선택과목을 면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일반선택과목 면제 규정을 적용한 학교가 적은 것은 1학년 교과 재량활동에서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이수하는 일반선택과목을 미리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성여고를 제외한 그 밖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선택면제 규정을 적용한 학교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국가 수준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일반선택과목 28단위를 교육청지정 선택과목의 이수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교에 설치된 과정은 대부분 인문과정과 자연과정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형상으로 본다면 기존의 문·이과식 과정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정이 2개로 단순화된 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과정들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별 최소이수단위에 맞추어 선택과목을 선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택주제 간의 선택과목 단위수는 학교지정이 가장 많고, 교육청지정과 학생선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에 관련된 초기의 선행 연구에서는 학교지정 단위수를 낮추고 학생선택 단위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어 최근의 연구에서는 학교지정 단위수는 높아지고 학생선택 단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선택주제별 단위수는 학교지정이 가장 많고 교육청지정과 학생선택이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선택 방법은 집단선택에 이어 백인선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유선택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백인선택과 자유선택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방법을 대규모와 소규모 학교 간에 비교해보면 집단선택은 소규모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였고 백인선택은 대규모 학교에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춘(2001)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는 집단선택은 학생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집단이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대규모 학교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학생선택의 유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출발하려는 현 시점에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선택을 많이 활용하고, 대규모 학교에서는 백인선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학기당 이수 과목수는 11~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10과목 내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다소 과목수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밝힌 학기당 이수 과목수 11~13개와는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한 학기에 10개 이하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소수의 과목을 심층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선택과목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 교과 재량활동에서 2~3학년에서 이수하는 일반선택과목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도교육청지정 과목이 일반선택과목 중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중이수하고자 하는 심화선택군의 일반선택과목은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선택과목 면제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제언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택 과목의 단위수 배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선택과목 단위수의 절을 다루는 문제는 비교적 소홀히 취급하였다. 즉 학생선택 단위수를 높이려는 것보다 학교 규모와 여건에 맞는 학생선택 단위수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선택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선택 과목 편성 방안에 비하여 학교지정 과목 편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하나의 과정만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통합과정을 설치하는 경우 통합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 것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통합과정 편성을 하는 방법, 인문과정 또는 자연과정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얻은 결과들이 많았다. 하지만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이 일박한 현재의 시점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현재의 교원·시설 여건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화여자종합고등학교(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교과목 선택제 이수 모형 연구」.
- 도계고등학교(2000). 「강원 도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2001).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방안 연구」.
-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방안 연구」.
- 경상북도교육청(1999). 제7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경상북도교육청(200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고창고등학교(2001).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적용」.
- 교육부(1997).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8). 제7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 교육부(2001a).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 교육부(2001b).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1a). 제7차 교육과정 지원장학협의체 시·도 총론요원 연수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1b). 제7차 교육과정 시·도 담당자/총론요원 연수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편(2001).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등학교」.
- 김두정(1999).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과정연구」, 제17권 제1호, 15-29.
- 김재춘(1997).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의미와 전망. 「교육진흥」, 제9권 제4호, 52-63.
- 김재춘(2000). 「중보편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김재춘(2001).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 김호권(1997). 「김호권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대전광역시교육청(2001). 「일반계 남녀공학 고등학교 모형(30학급)」.
- 문산여자고등학교(2001). 「일반계 고등학교 제7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양운고등학교(2002).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연수고등학교(2001).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 방안」.
- 연수고등학교(2002).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 방안」.
- 의성여자고등학교(2001).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의성여자고등학교(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이건주(2002). 서울대의 긴급제안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유보. 전교조 홈페이지.
- 인천강화여자고등학교(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2001).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연구」.
- 주문진고등학교(2000).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홍후조 외(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행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 홍후조(2001a).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상의 이해와 오해. 「교육과정연구」, 제19권 제1호, 197-229.
- 홍후조(2001b).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과목’ 선택 ‘교과영역’ 선택. 「교육과정연구」, 19권 제2호, 53-76.
- Glatthorn, A. A.(1994). *Developing a Quality Curriculum*. Alexandria, Virginia: ASCD.

ABSTRACT

A Study on Consisting of High School Elective-Centered Curriculum

Young Seok Kang

(Kumi girls' middle school)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consisting case of high school elective-centered curriculum. To accomplish the study, some question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What type of curriculum is installed?

Second: How many number of units of the elective courses do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chool, students select?

Three: What is the method that students select the elective courses?

Fourth: How many elective courses do the students study within a semest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iculum of most schools are consisted of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

Second, the number of units selected by school are 62-64, the number of units selected by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re 37-39 and the number of units selected by students are 35-36.

Third, the method of mass selection to select the elective courses is more used than alternative.

Fourth, students study 11-12 elective courses within a semester.

Key Words : type of curriculum, number of unit, elective courses, the method that students select the elective courses, elective courses that the students study within a semester?